

기
기
기

HOME 뉴스 의료

기사인기도

김치유산균이 발모 촉진 효과

서주태 교수팀, 김치 추출 생유산균 탈모 모발건강 효과 입증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 2019.09.10 0:1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날짜별 기사

김치 유산균이 발모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단국대학교 서주태 교수(現 서주태 비뇨기과 원장), 이호석 교수팀의 김치유산균 제제의 발모 촉진 작용을 검증한 연구결과가 세계 3대 남성학 저널(SCIE) 중의 하나인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에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탈모증이 있는 피험자(남성 23명, 여성 23명)를 대상으로 김치에서 추출한 생유산균 제제의 발모촉진 작용을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탁월한 발모촉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추적 조사기간 중 임상시험연구 참가자들의 모발 개수 및 굵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측정, 주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치 생유산균을 4개월 복용한 후 모발 개수가 85.98(±20.54)에서 91.54(±16.26)으로 증가했으며, 굵기 역시 0.062(±0.011)mm에서 0.066(±0.009)mm로 증가하는 등 통계학적으로(P-value 값 <0.001)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치 생유산균 제제가 발모촉진은 물론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최근 probioti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알려진 여러 작용들 가운데, 혈관내의 지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서 말초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모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계최초로 물질 등재된 김치 유산균, 청국장 발효균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출생 시에 사람은 약 5백만개의 모낭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모낭은 나이가 들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모발이 탈락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탈락하는 것을 탈모라고 정의 한다. 탈모는 전세계적으로 약 0.2%에서 2%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탈모가 피부의 질환에 있어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지만, 환자 삶의 질, 혹은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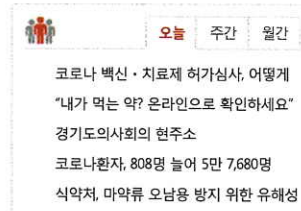
탈모의 여러 종류 중에서 남성형 탈모의 경우 가장 흔한 경우이며 주로 남성에서 나타난다.

여성도 일부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며, 난소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피임약의 과도한 복용, 폐경 이후 남성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앞머리의 머리 선이 점차적으로 뒤쪽으로 물러나는 현상이 관찰되며, 측면의 모발이 점점 얇아진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약간 다르다. 여성의 경우 정수리 쪽은 모발이 전반적으로 얇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현재 FDA에서 허가된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Minoxidil과 Finasteride가 있다. Minoxidil의 경우 아직까지 정확한 작용기전을 알 수 없지만, 모낭 주위의 혈관 확장으로 인하여 모발의 탈락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nasteride의 경우 남성호르몬의 변환을 차단하면서, 새로운 모발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주태 원장은 "이미 동물실험을 통해 김치유산균이 혈관 내의 지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초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발모를 촉진한다는 사실들은 확인되고 있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은 처음이며 탈모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이며, 이러한 점에서 세계적 저널에 해당 연구결과가 실린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김치 생유산균과 청국장 발효균이 탈모와 모발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치료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결과는 영국의 최대일간지인 The Sun지 등 세계 주요 언론에 소개돼 김치의 우수성이 또 한번 알려지게 됐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좋아요 0개 장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요기사

코로나환자, 808명 늘어 5만 7,680명

경기도의사회의 현주소

“내가 먹는 약?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의사 국시 재응시·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 확대

코로나19로 음주량 줄고 '혼술, 홀술' 늘어

국립중앙의료원, 방산동 부지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기사댓글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후 이용해 주세요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안내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헬스포커스뉴스 (주)헬스엔피플 | 사업자등록번호 211-88-35621 | 대표자 장영식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2층 1212호 | 대표번호 : 02-837-5945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033(등록일 2009년 11월 23일) | 발행·편집인 : 장영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영식

Copyright © 2009-2020 헬스포커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Customer NBS